

프랑스 SNCF, 경영실적 개선 속 철도망 현대화·기후대응 투자 확대

해당국가	프랑스	기관(기업)	SNCF그룹	동향분야	시장	국토교통 기술분류	철도교통
------	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프랑스 국영철도 SNCF*그룹은 2026년 상반기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, 여객 수요 회복과 주요 사업부문 성장을 바탕으로 경영성과를 강화

* 프랑스 국유 철도그룹으로 선로관리, 여객, 물류 등 5개 자회사를 보유

- 여객 수요 증가와 주요 사업부문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상반기 매출 219억 유로와 순이익 12억 유로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실적 개선을 지속
 -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2.0% 증가한 219억 유로를 기록했으며, 여객·선로관리·도시교통 등 주요 사업부문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
 - TGV 고속철 이용객은 8,340만 명으로 2.8% 증가하고, 파리 광역 통근철도와 지역철도 이용객도 각각 4.1%, 2.3% 늘어나 여객 수요 회복세를 지속
- 수익성과 현금창출력이 개선되고 순부채도 감소하며 재무 안정성과 투자 여력을 강화
 - EBITDA*는 38억 유로, 매출 대비 17.4%를 기록해 전년 동기 16.8%보다 0.6%p 상승하며 수익성을 개선
 - * 이자·세금·감가상각 차감 전 이익으로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
 - 잉여현금흐름은 15억 유로 흑자를 기록하고 순부채는 236억 유로로 감소해 재무 건전성과 향후 투자 기반을 강화

□ 상반기 49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노후 철도망 현대화와 기후 대응형 철도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, 국내외 철도·대중교통 운영시장 경쟁력을 강화

- 철도망 재생·현대화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선로와 전차선 등 핵심 인프라를 집중 개보수하여 철도망의 안정성과 운행 신뢰성을 강화
 - 상반기 선로 390km와 전차선 160km를 교체하고, SNCF Réseau는 25억 유로 투자액 중 15억 유로를 철도망 재생사업에 투입
 - 2028년부터 철도망 재생 투자를 연간 30억 유로에서 45억 유로로 확대하고 사업부문별 기후 리스크 대응계획을 수립
- 극한기후와 철도 설비 고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차량과 스마트 예방정비 기술을 확대하고, 국내외 철도 운영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
 - 고온 환경에 대응 가능한 차세대 TGV를 도입하고 스마트 센서 기반 상태감시·예방정비를 확대하여 차량·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
 - 상반기 지역철도 운영권 3건을 모두 수주하고, 케올리스를 중심으로 아일랜드·미국·북유럽 등 해외 교통운영 사업을 확대하여 글로벌 철도·대중교통 운영시장 경쟁력을 강화

※ 출처 : SNCF Group(2026.07.28), SNCF Group 2026 Half-Year Results